

무산된 무안기업도시 사후처리도 엉망

주민에 실패 안 알리고 관련자는 되레 승진

군수 “제외지역 최우선 지원” 약속도 거짓 들통

무안 기업도시가 사업 추진 8년만에 무산됐는데도 무안군이 해제 수순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무안군은 지난 달 23일 자로 무안 기업도시 사업연장 실시계획 제출기한이 만료돼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났는데도 주민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기업도시개발예정지인 무안읍과 정계면 주변에는 기업도시개발 당시 설치해 놓은 특별법 안내문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 기업도시개발이 지금도 진행중인 것 아닌가라는 혼란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김철주 무안군수는 지난 달 30일과 31일 군민과의 대화에서 “기업도시 예정지인 망운면과 현경면 주민들에게 기업도시개발 실패로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지역 소규모개발사업시 기업도시 제외지역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안군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등에 58억9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기업도시 제외지역 주민숙원사업에는 2억5500만원만 배정해 최우선 지원 약속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군은 또 그동안 초고속 승진을 시킨 기업도시사업소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고 최근 정기인사에서 오히려 영전 조치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무안군이 주민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며 “기업도시 사업 무산으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을 달랠수 있는 신성장동력 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기업도시 개발 당시 설치해 놓은 특별법 안내문이 사업이 무산됐는데도 국도 1호선인 무안군 무안을 평평교차로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김민준기자 jun@

신안에 독립운동가 장병준 기념관

50억 들여 장산면 생가 부근에

신안군이 독립운동가 포양 장병준(張炳俊·1893~1972) 선생의 기념관·추모관 건립 등 선양사업을 펼친다. 군은 지난 1일 장산면 사무소에서 장 선생의 후손과 친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가(200㎡), 터(2508㎡), 유품(100점) 등을 기증하는 협약식을 열었다.

군은 보존 상태가 양호한 생가 부근에 82㎡의 기념관, 33㎡의 추모관, 관리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장 선생의 묘역 공원화 사업 등도 펼친다. 사업비는 모두 50억 원으로 오는 2015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장병준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운동가다.

인동 장씨 가문으로 3대에 걸쳐 정·관·학계에서 명성을 떨쳤다. 1세대인 장병준·장흥재·장홍열 선생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에는 국회의원 등으로 활동했다.

2세대인 장정식·장종식·장영식·장재식씨는 한국전쟁 참전과 정치인·관료·의사로 이름을 알렸다. 3세대인 장하진·장하성·장하경·장하준·장하석·장하중·장하원씨는 학자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신안=이성선기자 sslse@



갯벌낙지 등대 눈길 무안군이 지역의 대표적 특산물인 낙지를 형상화해 해저면 도리포항에 설치한 갯벌낙지 등대가 눈길을 끌고 있다.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등대는 폭 5.8m, 높이 6.3m로 등대 기능 이외에 관광객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됐다. <무안군 제공>

함평여고·학다리고·나산고 통합 음 인근에 거점고 신설 방안 추진

함평지역 고교 3곳과 중학교 4곳이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청은 함평지역 고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함평지역 일반계 고교는 공립 함평여고와 사립 학다리고, 나산고, 함평고의 4곳으로 학생 수에 비해 학교 수가 많고 소규모화돼 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됐다.

그러나 농어촌 고교를 하나로 묶는 거점고로 지정될 수 있는 유일한 공립 일반고인 함평여고는 학년당 학생 수가 50여명밖에 되지 않아 함평은 거점고 사업에서도 제외됐다.

이때 따라 지난 1일 함평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단위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거점고 지정을 전

제로 한 학다리고의 공립화 논의가 이뤄졌다. 나산고도 참여했다.

추진위는 함평여고, 학다리고, 나산고를 통합해 함평읍 인근에 최신 기숙사와 교실 등을 갖춘 21학급 500명 규모의 거점고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중학교는 함평중, 함평여중, 신광중, 학다리중을 함평중과 함평여중 2개교로 통합하고, 나산중을 전국 단위 기숙형 특성화중학교로 개편하는 안을 협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립학교 이사회, 동창회, 교직원 협의회 및 지역 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학교 명칭과 부지 등에 관한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거점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광원전, 주민에 방사능 방호장비 지급

홍농·법성·백수읍 1만4천명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발전소는 인근 주민에게 방사선 방호 장비를 지급하고 약품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원전은 비상사태에 대비, 20일 까지 방사능비상계획구역(BPZ) 반경 10km 이내에 거주하는 홍농, 법성, 백수읍 주민 1만4000여명에게 방

호방비 1만7100종을 공급한다.

방호장비는 방사능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복, 보안경, 마스크, 덧신, 장갑 등으로 구성됐다. 장비가 지급되면 3월까지 마을 이장 등을 통해 가구마다 보급된다.

영광원전은 기존에 보급한 약품 19만여 점도 교체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7만여 점을 새롭게 보급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영광원전 새 이름 공모

영광군은 1일부터 10일까지 영광원전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새로운 명칭이 선정되면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변경을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

영광군 홈페이지(http://www.yeonggwang.go.kr)에서 지원 양식을 내려받아 명칭과 명칭 선정 사유를 작성, 우편이나 이메일(insung68@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영광군청 경제안전과(061-350-5823)로 하면 된다.

영광군은 새로운 명칭이 선정되면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변경을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전북

‘고가 논란’ 전주 비빔밥 적정 가격찾기

비빔밥 사업단, 오늘 한지센터서 토론회

‘전주비빔밥’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

‘음식 도시’의 명성을 얻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주비빔밥 가격을 공산품처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푸념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전주비빔밥의 명성과 정체성에 큰 타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광배하다.

그래서 전주시 비빔밥세계화사업단이 비빔밥의 적정 가격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4일 오후 한지센터에서 ‘전주비빔밥 가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그것이다.

공급자인 비빔밥 업소 주인을 비롯해 소비자, 음식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자 등이 토론에 나선다.

그동안 ‘전주비빔밥’은 유통세를 타고 한정식을 가미, 한 상에 3만8000

원까지 올라 고가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난 1년간 한국의 소비자 물가를 조사한 결과, 전주비빔밥의 평균 가격이 715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음식 재료와 서비스의 질에 따라 비빔밥 값이 천차만별이지만 최근 일부 대형업소들이 가격을 너무 올렸다”면서 “토론을 통해 ‘전주비빔밥’의 정체성을 찾고 누구나 만족하는 가격대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주=김철수기자 knews@

“전북도 성장모델 전주·완주 통합 필요”

6일 전주 전통문화전당서 공청회

전주·완주 통합 비전을 설명하고 시민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6일 오후 전주 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다.

공청회는 전북도·전주시·완주군이 공동으로 희망제작소에 맡긴 ‘통합시(市) 비전’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 전문가 찬반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완주군에서 열린 공청회는 일부 통합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찬반 토론이 무산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하지만 통합 찬성여론이 우세한 전주지역 공청회는 큰 마찰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동안 완주지역 주민이 반대이유로 내세웠던 ▲혐오시설 설치 ▲세금증가 ▲농업·농촌 소외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각종 지원책 등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한다.

원래 하나의 도시였던 전주·완주는 일제강점기인 1935년 강제 분할됐다. 다가 지난 20여년간 통합 논의가 진행됐으나 ‘흡수 통합’을 우려하는 안

주군 측의 반대로 지금까지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09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통합 여론조사에서 전주시의 찬성률은 88.4%였지만 완주군은 35.8%에 그쳐 통합이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 4월 전주시장과 완주군수가 통합에 전격적으로 합의,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 대상에 포함돼 6월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다.

/전주=김철수기자 knews@

남원시, 설 앞두고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

남원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가계생활에도 보탬이 되는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남원시는 시민의 실천사항으로 각 가정,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 전기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을 차단기로 했다.

플러그만 뽑아도 전력사용량의 11%를 절감할 수 있고 일반가정은 연간 4만5000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명절 음식은 먹을 만큼만 만들고 1회용품 사용은 줄이는 운동을 전개한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땀흘리는 석불

보물 45호인 익산 석불사의 석불좌상(石佛坐像)이 최근 머리 부분을 제외한 가슴과 다리에서 땀을 흘려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석불좌상은 1950년 한국전쟁과 1997년 IMF 외환위기에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도 구슬같은 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리는 현상을 보여 일명 ‘땀흘리는 석불’로 불린다.

/연남뉴스

정읍 첫 협동조합 ‘정읍푸드...’ 출범

친환경 농산물 취급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정읍시에서 첫 협동조합이 출범했다. 정읍시는 3일 지역 첫 협동조합으로 ‘정읍푸드융합여성농업인협동조합’이 창립, 친환경 농산물과 먹거리를 제공하는 ‘로컬푸드’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여성농업인 5명이 출자, 시내 샘고을 전통시장에 ‘마을도시락 카페’를 열어 친환경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음식을 판매한다.

조합 김상례 이사장은 도시락 카페 운영, 로컬푸드 운동, 지역농산물 가공 판매로 소득을 창출하고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백기섭기자 parkks@

단신

멸종위기 흡소 정액 사육농가 무상 공급

전북도가 멸종위기에 처한 흡소의 동결정액을 흡소 사육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한다. 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지난 2005년부터 흡소의 혈통복원 연구를 통해 얻은 흡소의 동결정액을 도내 사육농가에 보급해 혈통보존을 물론 나아가 대량번식을 유도할 방침이다.

위생연구소는 농가내 흡소 암소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나서 가장 적합한 씨수소를 선정, 1대1일 맞춤 정액을 공급하게 된다.

흡소는 칩냥과 같은 무늬와 몸 전체에 퍼져 호랑이 무늬와 비슷해 ‘호반우’라고도 불린다. 멸종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10여년간 복원과 증식 노력으로 도내의 150여마리를 포함해 전국에 1700여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전주=김철수기자 knews@

순창 인계농공단지에 제빵공장 유치

순창군은 인계농공단에 우랑과자·빵 제조회사인 ㈜광일식품이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순창군은 ㈜광일식품과 투자협약을 맺어 기반시설 확보, 행정절차 간소화, 투자 성과보수 제공 등의 행정·재정 지원을하기로 했다.

㈜광일식품은 연내에 50억원을 투

자, 인계농공단에 3800㎡ 규모의 제과·제빵공장을 건립하고 30여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원료로 써 생산농가와 상생 효과도 기대된다. ㈜광일식품은 과자와 빵류를 주요 식품회사와 전국 편의점에 납품해 연간 9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군산서 설날 씨름장사대회 열려

올 시즌을 여는 설날 장사씨름대회가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8일부터 나흘간 군산 월명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8일 태백장사(80kg 이하), 9일 금강장사(90kg 이하), 10일 한라장사(110kg 이하), 11일 백두장사(150kg 이하)를 차례로 가린다.

대회 기간에는 전통무용·연예인 공연,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며 경기는 KBS-1TV를 통해 매일 생중계된다. 오전 11시부터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입장권은 월명체육관 정문에서 배부한다. 초·중·고 교생이 경기를 관람할 경우에는 봉사 실적(1일 2시간)도 인정해 준다.

대회 기간에는 전통무용·연예인 공연,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며 경기는 KBS-1TV를 통해 매일 생중계된다. 오전 11시부터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입장권은 월명체육관 정문에서 배부한다. 초·중·고 교생이 경기를 관람할 경우에는 봉사 실적(1일 2시간)도 인정해 준다.

/군산=박금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의회, 서남대 폐쇄 결사 반대

남원시의회의는 지난 1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서남대 폐쇄 방침에 대해 결사 반대하고 학교 정상화를 촉구했다.

남원시의회의는 서남대 문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재단비리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비리에 연루된 관계자는 퇴출해야 마땅하지만 선량한 학생, 학부모, 학교 구성원 등은 구제되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의는 다른 지역에 대대를 유지하기 위해 서남대를 폐쇄하려 한다는 정치적 계략이나 음모설이 사실이라면 시민 서명운동, 관련부처 항의 방문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